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5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95:1-7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41장(새 20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5번(새 27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임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나의 뜻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심으로 주님이 사랑이시고 생명과 구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며 섬김과 헌신을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주님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마태복음 5:21-26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말이 나의 영의 상태를 말해 줍니다

- 봉 헌(offering) 354장(새 215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216장(새 424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이번 주 화요성경공부 및 기도회는 국경일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3. 동북오하이오 교역자연합회 주관 연합부흥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15일(토), 저녁 7:30
 - 장소 :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
 - 강사 : 김경진목사(서울 소망교회)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13:1-7을 읽고 묵상하여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둡시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4-7절의 말씀을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에 적용함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와 반응이 나왔는지, 또한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되었는지 다음 속회 모임 때 나눕시다.

〈말씀묵상〉 마태복음 5:21-26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과 심판에 대한 더욱 강화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21-22절) 나는 주님의 기준이 적용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다른 사람의 원망을 샀을 때나 고발당했을 때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3-26절) 나는 어떤 방식을 다른 사람과의 묵인 관계를 풀고 있습니까?

❖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마5-7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준은 구약보다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외면적인 모습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행위의 동기와 근원이 되는 내면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욕 한마디 하고 비난했다고 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강조를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그의 언어 행위에 담긴 속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뱉어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뭘 그걸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사람이 다 그렇지.” 과연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던진 말들이 과연 우연과 실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에 쌓은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쌓은 분노와 미움, 시기와 질투, 불만과 불평 등은 언젠가는 화장이 지워진 배우의 얼굴처럼 민낯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는 말들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자신의 영의 상태를 여실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목전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3:3).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성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때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